

제 8 회 특별한 내과학
8 회, 언어, 두리 thyroid, cricoid, arytenoid
→ 말을 미리 알고 있다.

" b/p → 25 m/s 기후
→ 입도 open 후 25 m/s "

언어 → 개인, 문화, 생물 계층에서
작용하는 **역동적 적응**

단어 → 범주화된 개념의 **교차점**

언어는 인주가 가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주가 행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상징 → 그 자체로는 통제하지 않는다.
다른 상징들의 **맥락** 속에서만 통제한다.
특히 상징들간의 **관계** 속에서만 통제한다.

기호 이론 '퍼스' → **도상적 지시** : 유사관계 경계 → 풍경화
지표적 지시 : 상과관계 동물의 경고 표시
상징적 지시 :

상징 사용 상황
비구체적 상황 : ouch, wow, damnit
맥락적 상황 : hello, yes, no
의사소통 상황 : 어형의 변형, 단어 순서 변화
단어의 문법적 범주화

유인원: 인주 → 발음의 범위가 아니고,
발음의 **운동제어 체계**이다.
발음의 선별적 명료화, 순서 변화

춤스키 → 핑커, 플룸 리버만
진화적 설명이 약하다.

언어 구문 → **운동시스템**
↓
basal ganglia
대뇌기저핵

본문을 찾는 사람들의 대한 영향이 있다.
 "황금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본문이 있다는
 섬에 도착한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
 한다. 끊임없이 파고 파다. 몇 년 며칠을
 같은 일을 반복한다. 끝내 지치고 만다.
 포기하며 곡괭이를 던진다. 하늘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진 곡괭이 —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종교는 섬 전체를
 진동시킨다.
 섬 전체가 황금종이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행을 하는 자 있는가
 황금종이 물건같이 있는가?
 이 번 강의가 끝나고 그 종의 울리는지
 별기를 바란다.
 마지막 강의는 '언어'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 한다.

단어에서 풍성한 것은 '교차점'이라는
 말이다. 잘해냈어 ~ 라는 말이 있다.
 말 뜻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칭찬처럼
 들린다. 그러나 만약 꽃병을 떨어뜨린
 아이에게 '잘해냈어, 잘해냈어~' 라고
 하면 맥락상 칭찬이 아니라 이공메시지가
 들어간 비꼬는 해령한다.

많은 장년이 가능한 이유이다.
 상징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과'라는 상징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일례로 '죽 선장'이 호수에 뛰어
 다니는 동물을 보고 애벌레지에게
 저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
 그러자 애벌레지의 대답은 '카방거죽'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방거죽
 라는 말은 '모른다.'라는 뜻이다.

상징은 생각해 보면 실체가
 없다. 상징은 맥락 속에서만
 존재한다.

황금종을 어디 있는가? 섬 전체
 황금종이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우주가 진공 속에서 쿵폭발이
 일어나 점점 커졌다. 인플레이션
 이론이다. 여기에 우리는 놀라와
 새중물에 감동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언어도
 놀랍다. 실체가 무엇인지
 듣지 못하면 더욱 사라진다.

A → B

A가 B를 가리킬 때 지시관계가 있다.

도상적 지시

}}} 이 모양을 모친이라는 형태의 상징이다.
형태가 모친을 가리킨다.
유사관계에 놓여 있다.

지표자 지시 → 동물이 하는 듯하다.

개가 산책을 하다가 경계표시로써
원공이나 변을 본다. 자기 영역이라는 뜻이다.

상징적 지시

상징 사용 상황

바뀌게, 상황 : ouch, wow, damnit

위생, 기쁨, 당황이나 흥분한
상황에서 쓰는 말은 구체적인
상황이 아닐 때 쓴다.

매력적 상황 : hello, yes, no

유희시절 영어의 들기와 말하기가
서둘 때 지시 과수와 인터뷰 하는 때
밀로 끌려 감이 'yes'만 한다고 하자.
부정적 상황에서 'yes'라고 한다.
'yes 나 no'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동물에게는 'no'라는 표현이 없다.

회피만 있을 뿐이다.

상황이 맞지 않아, 단어가

없다.

→ 대 소용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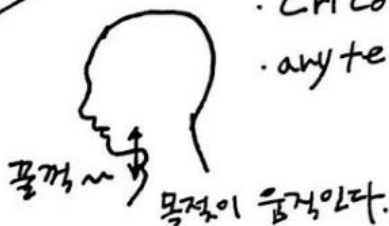
어형의 변화 - 했다. 한다.
했었다.

당어승서 변화 -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당어 문법적 범주화

- thyroid
- Cricoid
- arytenoid



시간의 표현은 어디서 오는가?
언어에서 오는가?

thyroid, cricoid, arytenoid의
개념은 시간의 탄생에 해당하는
정도로 크게 생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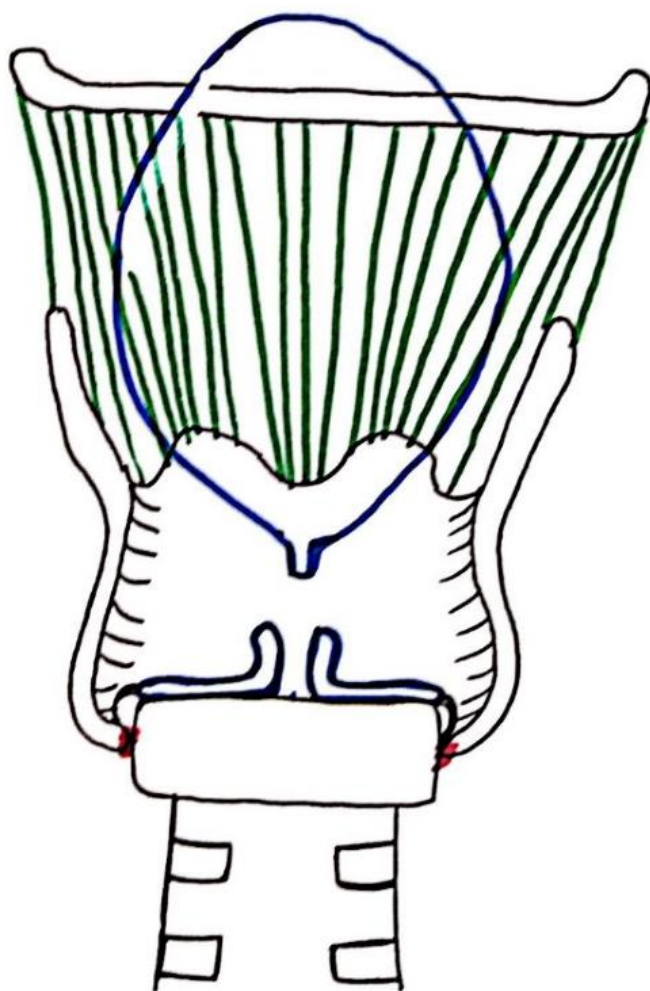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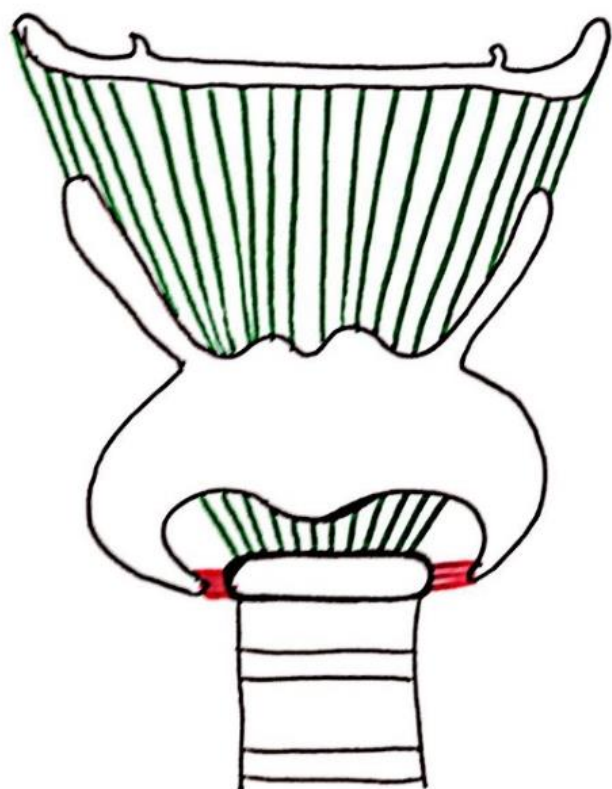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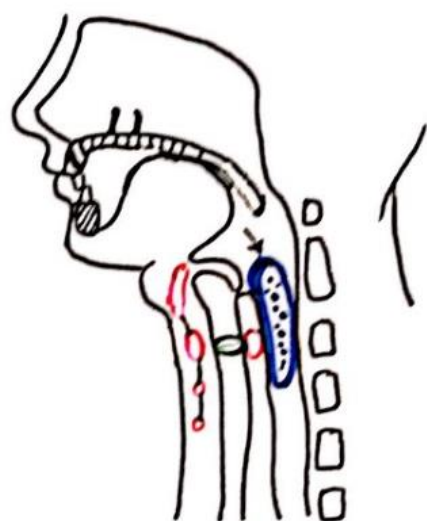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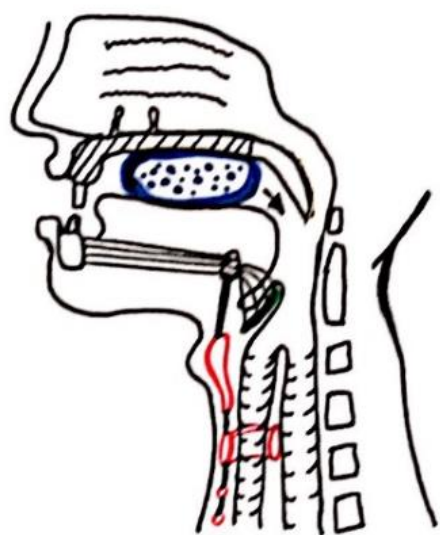
신중에 제우스의 개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어야
한다.

혀의 근육이 박박하는 벼를

설교이라 한다. 이 벼는 공중에
떠 있다. 다른 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미지

유치이러 표현하였다.



음식물을 먹을 때를 떠올려 보자.

말꼭질에 대한 자질을 찾아 보았다.

한국에서 2년 동안 한 사람이 있다.

보았더니 미국에서 3년간 말꼭질을

한 사람이 있었다.

또 자질을 찾아서 60년간 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

평생 동안 소리를 낸다. 말꼭거림이다.

목소리는 공기방울의 수자이다. 공기를 잘라내어
소리를 낸다.

언어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실 소리는 음식을 먹으며 발달한
기관의 변형으로 태어났다.

음식물이 기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

혀뿌리 부분에 풀러 형태의 기관이 있다.

기도로 들어가는 문을 닫으면 성문 음식이

넘어간다.

그리고 또 기도로 넘어간 음식을 막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중개에 기관이

생긴다. Cricoid 라는 가락지 모양의

기관이 생기고 가락지 양에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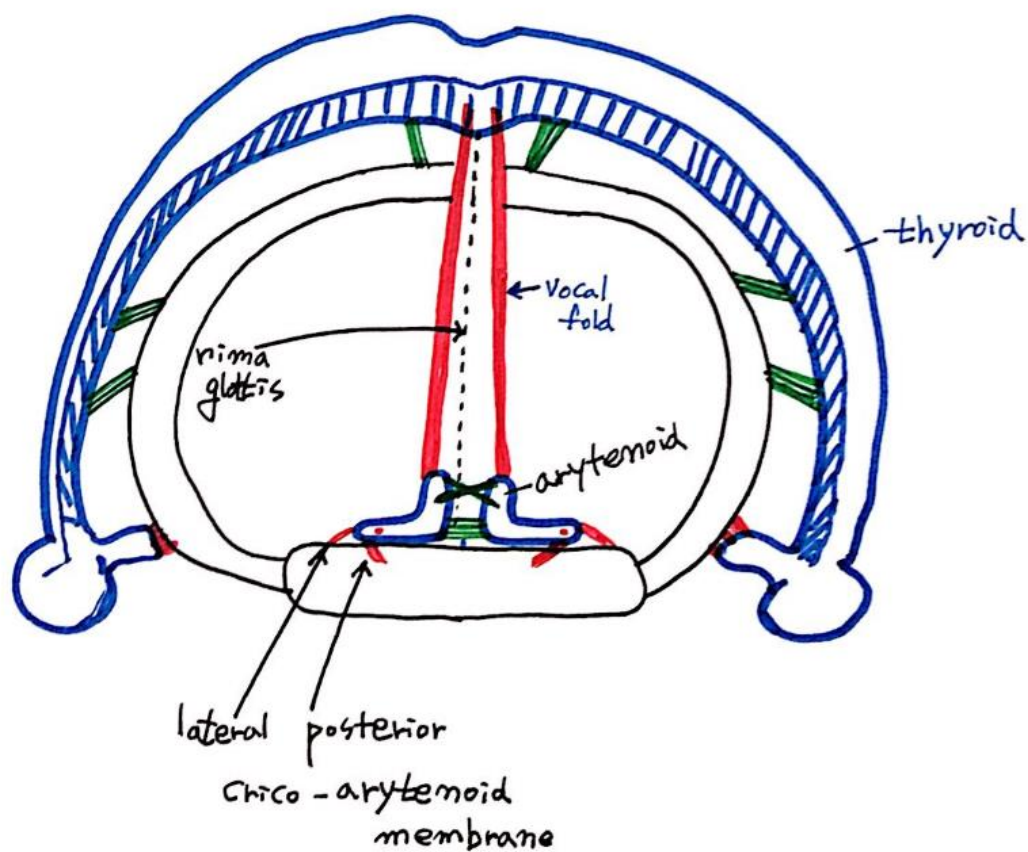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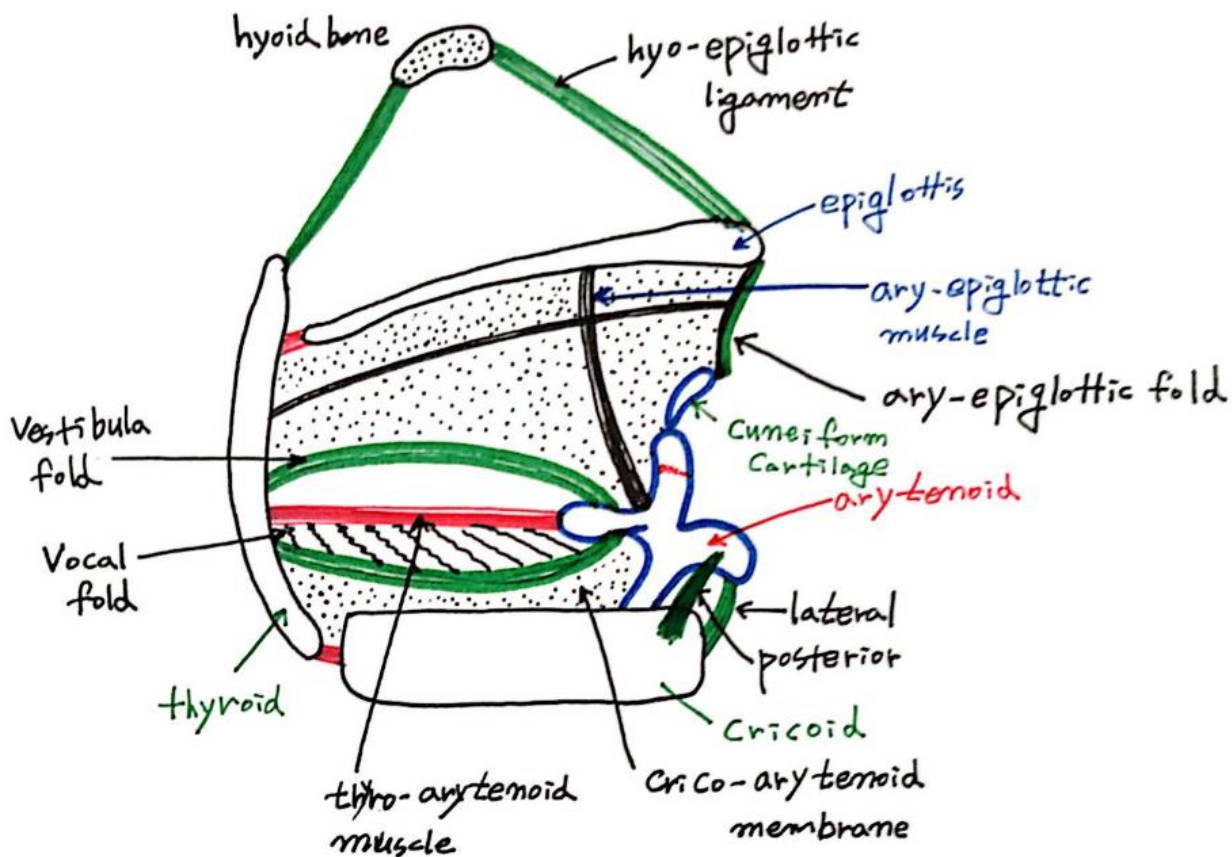
열렸다 하는 제2차 장치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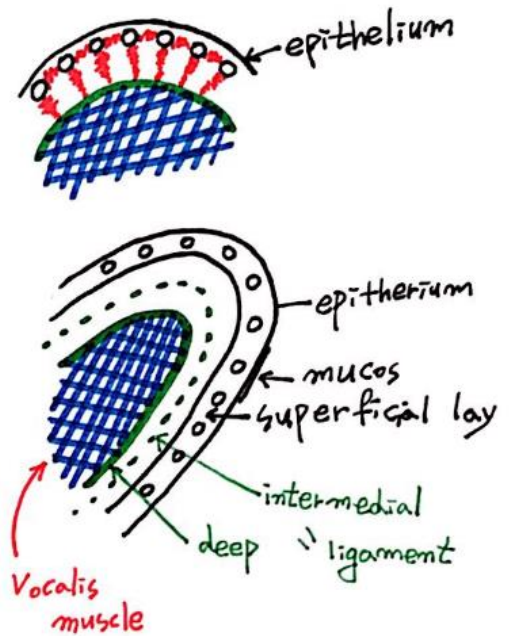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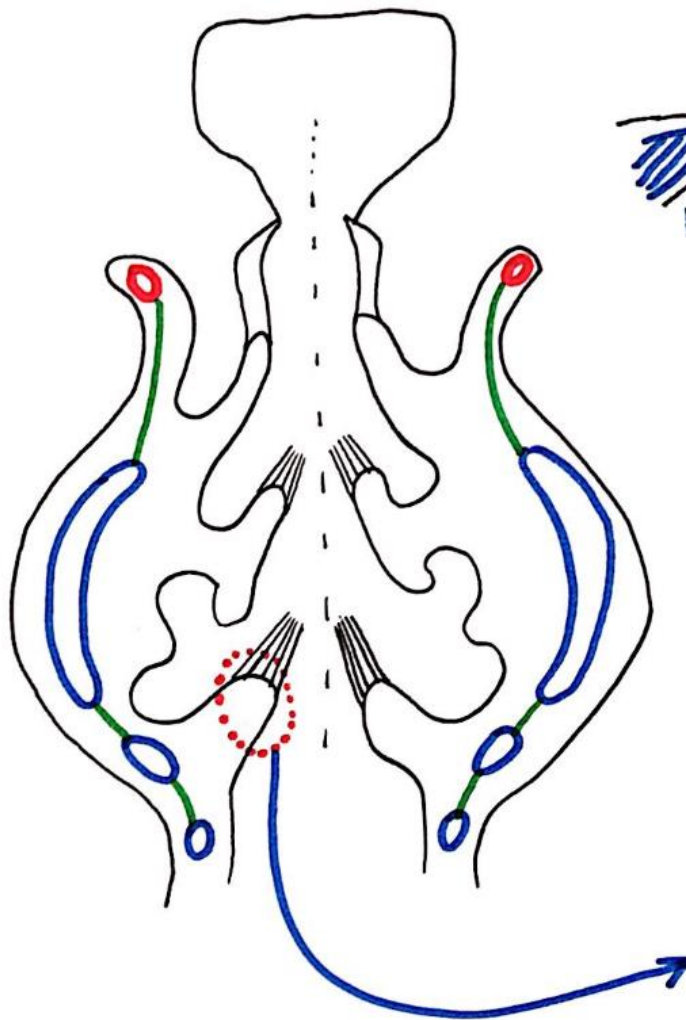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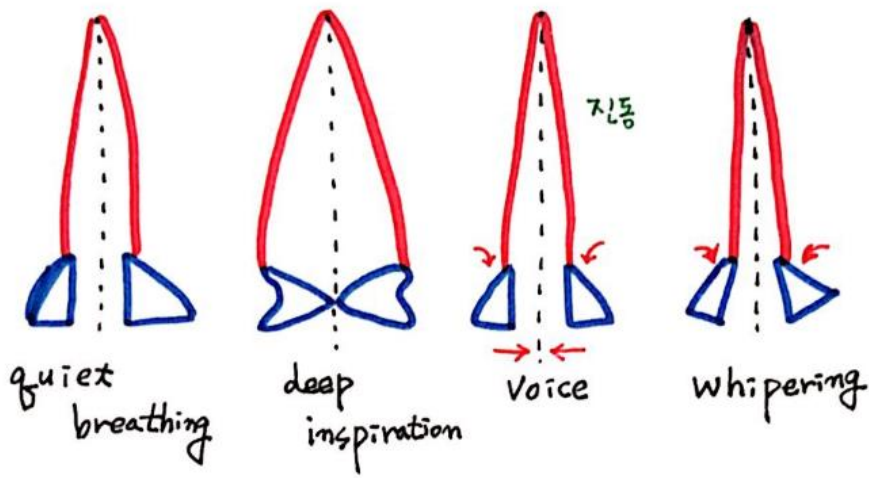
생태의 현상이다.

소리를 내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술로 생각해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를 꼭 그려야 할 수 있다.





언어의 축형은 소리로 부터이다.

'b'와 'p'의 구분은 25ms 차이가 있다.

B와 P의 선별적 명료화는 분명 감각의 결과이다. Brain은 25ms 차이를 만들고 음동하고 느낄 수 있다.

언어의 시작은 분명히 소리이며, 소리는 운동과의 관계이다.

언어는 운동에서 시작되어 있다.

"arytenoid motion"이 소리를 만들었고, 소리의 섬세한 구분이 언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미리 하하하 하는 말을 알고 있다. 예측된 운동체계가 완성되어 있음을 느끼야 한다.

심지어 말에 감정을 실을 수 있을 정도다. 감정이 기억이고, 기억의 활용이 생각이다.

25ms의 구분은 의식하게 못한다. 그러나 Brain은 심화한다.

처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황금종을 섬 전체이다.

초음은 초음성이 시작되기 많은 곳에 있다.

소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 하나만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북군이 몸을 불태고, 늑대가 늑골을 연다.

황금망이 황금망이며 숨을 몸 안에서 붓러 들어간다.

thyroid, cricoid, arytenoid가

음성이며 귀를 350 바이트 공기바이트를

만들어 낸다.

→ 몸 전체가 황금종처럼 울려야 소리가 난다. 단순히 소리가 나게 아니다.

언어는 소리에서 나왔다.

소리는 음성이 기동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만든 thyroid, cricoid, arytenoid에 의해 태어났다.

언어는 그저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부터 언어를 만들기 위해 정리가 있지 않았다.

심지어 상징 또한 그렇게 하기로 한데서

만들어졌다.

일반상대성이론이 광속을 불변으로 두기에서 시작되었고, 양자역학이

문득 그렇게 한데서 우리가 언어가 생겼기 때문이다.

초음은 초음성이 많은 곳이 있다.

생각, 언어, 신비한데

있지 않다.

